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중시



대전은 서울에서부터 시간거리로 두시간 남짓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를 3등분 하여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대덕군에 속하여 충북 옥천군과 인접하고 있는 중·남부지방의 교육·문화·행정의 중심도시이다.

대전이라는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지형학적인 사실들은 오히려 생소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사무치는 곡조로 시작하는 50년대의 유행가 「대전발 0시50분」을 모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잘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 동란을 겪은 어수선한

시절에 피난지에서 돌아와 제각기 살 곳을 찾아 떠나가던 사람들이 이별의 정을 나누던 곳이 바로 대전이었음을 노래가사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도의 등줄기를 따라 동해안을 끼고 힘차게 뻗어내려 온 태백산맥과 서해안을 향하여 가지쳐 내려온 소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충북과 경북지방 일대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지형의 특수성 때문에 도로망이 대전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이곳이 영·호남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음은 전후 3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대전지부를 찾은 날은 구정을 하루지난 춥고 흐린 날이었다.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고려화재빌딩 4층 사무실에 들어서니 徐英錫과장과 李起彦과장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곧 曹圭萬지부장을 뵈고 인사를 여쭙었다. 늘 그러시듯 깔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대해주시며 낮은 도시, 낮은 거리를 지나오느라고 굳어있던 마음이 쉽게 누그러졌다.

대전지부는 75년 1월 중동소재 보옥당 건물에서 문을 연 이래 화신빌딩과 송산빌딩을 거쳐 82년 2월 15일 고려화재빌딩으로 옮겨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부 총인원은 12명으로 지부장, 과장3명, 대리2명, 기술직3명, 일반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부는 본부의 완벽한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본부의 열네개 부서 4백여명이 나누어 하는 일을 고작 열두명이 맡아야 한다고 보면 지부장에서부터 가장 나이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여간 다양한 것이 아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업무량의 대비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업무의적인 사항들이 산적해 있지만 막상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徐과장, 李起彦과장의 담담한 자세는 하나의 조직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원활하게 활동해 나갈 수 있는 본질적인 추진력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부생활을 하려면 올라온드·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은 曹圭萬지부장의 대외활동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대전시 방화대책협의회 위원으로 매월 월례회의에 참석, 대전시 방화대책수립에 참여하시는 외에 보우회회장, 대전대학 학장을 지부장으로 하는 보험학회 부지부장등 공식적 직함에 따르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협회의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소방서·시청·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가스판매유통협회·요식업협회·산업은행등과의 계속적인 유대강화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스보험인수의 토대를 다지는 일로 요즘들어 더욱 여념이 없는 듯 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인가되어 85년 1월 1일부터 협회가 인수하게된 가스보험에 대해서는 일반의 인식이 전무하다시피한 형편이므로 기한부 가입촉구 공문을 대상업체에 발송하는 한편 지부장과 과장 전원이 관계기관을 방문, 공문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전시민의 가스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한다.

徐英錫업무과장에 따르면 85년도 기수목표는 전년도 대비 9%의 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신규물건 발굴및 미가입물건 일소, 특건소유주에 대한 서비스강화, 점검, 보험업무의 유기적 운영을 통한 업무능률 신장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점검업무에 있어서는 구청의 준공검사대장 열람을 통한 신규물건발굴이 그간 1백22건에 이르러 업무신장율이 전년도대비 18%를 기록했으며 그중 95%가 점검과 동시에 계약을 마치는 좋은 성과를 올려 앞으로도 이처럼 점검시에 신규물건및 만기물건에 대한 보험가입권유 및 유도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 李起彦점검과장의 설명이었다.

한편 대전지부 특유의 제도로서 월례전직원 회의시 신규및 미가입물건 우수거수자에 대한 시상제 실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84년 6월 조지부장의 부임이래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신규물건, 신규미가입, 만기미가입 등으로 구분하고 대상업종별, 점검, 보험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최고 1만원에서 최저 2천원까지 시상하고 있다고 한다. 담당 여직원 연순희양이 보여주는 노트에 가득찬 숫자들이 그간의 실적이 대담한 것을 느끼게 했다.

대전지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곧장 눈에 띄는 정면에 붙여진 「신뢰와 사랑」이란 글씨는 무엇이야고 문자 지부의 잔살림을 알뜰히 살피던 홍영숙양이 그것이 지부훈(訓)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적은 인원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노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지부구성원 상호간의 긴밀한 인간관계, 곧 인화단결 외에 달리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대전지부 직원들의 의견이었다. 그런 점에서 직원 상호간에 서로 믿고 아끼는다는 좌우명처럼 적절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앞으로 대전시를 중심으로 제2 행정관청 및 대단위 연구단지등 국가 중추기관들이 옮겨올 전방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협회업무도 상당히 변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협회 본연의 업무는 물론 협회가 그간 축적해온 방재 관련 각종 기술정보및 자문과 자료제공, 보험의 효용성 및 활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단체로서 뿌리내리고 있는 대전지부의 모습에 한층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됨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